

음악으로 꿈꾸는 결핵 없는 내일

기타리스트 하세가와 요헤이



지난 5월의 어느 날,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이용해 트위터의 타임라인 속으로 들어갔다(필자는 결핵홍보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다). 트위터의 타임라인에서 '결핵'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결핵에 관한 뉴스 기사를 알리는 내용, '기침이 많이 나오는데 결핵이 아닐까?'라며 걱정하는 글 등 평범한 내용들이 드문드문 올라오곤 하는데, 그 날 유독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결핵 없는 내일

결핵 없는 내일? 호기심에 살펴보니,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음악 소개 코너인 '양평 LP바'에서 '결핵 없는 내일'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방송되었는데, 이 노래가 참 신선하고 독특해서 좋았다는 반응이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바로 찾아서 들어보니, 노래가 예사롭지 않다. '꽤 멋지잖아!' 1969년도에 대한결핵협회와 미평화봉사단원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결핵 없는 내일> 음반에 수록된 동명의 곡 '결핵 없는 내일'. 결핵협회 직원도 모르는 이 노래를 라디오에서 소개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고, 그렇게 알게 된 하세가와 요헤이, 김양평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그는, 산울림, 뜨거운 감자, 황신혜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기타리스트로 활약하고 미미시스터즈 음반의 프로듀싱을 맡는 등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다.

꼭 만나고 싶었다. '결핵 없는 내일'이라는 앨범도 궁금했고, 그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나, 10월의 어느 날 홍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필자(이하 박): 바쁘실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세가와 요헤이(이하 하): 아닙니다. 마침 쉬는 날이라서 괜찮아요.

박: 요새도 작업으로 바쁘신가요?

하: 장기하와 얼굴들의 정식 멤버가 되어서, 요즘은 3집 작업을 계속하고 있죠.

박: 음악 이외의 다른 활동들도 하시나요?

하: 음악 말고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가끔 일본에 가서 밴드 활동하는 친구들과 공연을 하기도 하고, 디제이로서 한국음악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하죠.



박: 한국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하: 저는 전 세계의 60~70년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일본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터키나 인도에도 좋은 음악들이 많았죠. 사실 한국에 처음 오게 된 것도, 한국의 당시 음악을 알고 싶어서였어요. 처음 신중현 선생님과 산울림의 노래를 들었을 때, 바로 이웃 나라에 이런 음악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의 음악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직접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한국에 온 건 17년 전 쯤이었는데, 음악을 해야겠다기 보다 단순히 음반을 구하기 위해 왔었죠. 지나다 보니 친구도 많아지고, 제가 기타를 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인들이 같이 공연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기도 해서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박: 한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디밴드 활동을 했어요. 음악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프로뮤지션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져요.



박: 아무런 계획없이 시작되었던 여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하: 그렇네요(웃음).

우리는 계속해서 그의 음악활동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60~70년대 음악의 흐름인 사이키델릭 장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핵 없는 내일> 음반이 발매된 것은 1969년. 이 노래에서도 사이키델릭 요소들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

박: 이 음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하: 처음 이 음반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앨범일까 생각했어요. 자켓사진에는 외국인들이 있고, 뒷면을 보면 타령도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끌렸던 건 이 앨범이 비매품이라는 사실이었죠.

이게 왜 만들어진 음반일까? 캠페인 송인가? 뒷면에 밴드가 연주하는 사진이 있어서 밴드 음악이 아닐까 했죠.

박: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앨범에 대해 알고 계셨던 건 아니군요?

하: 사실 한글을 읽을 수 없을 땐, 사진에 4~5명이 나온 사진을 보면 무조건 밴드라고 생각하고 샀어요. 음반 한 장에 1,000원 정도였으니 부담도 없었고요. 그런데 사고 보니 정말 좋았던 거죠.

박: 제가 대한결핵협회에 근무하면서도 이 음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SNS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당시 반응이 뜨겁더군요.

하: 반응이 좋았어요. 노래하는 이의 발음 때문에 재밌어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노래가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외국인이 소개를 하니깐. 그리고 아무래도 첫 방송에서 소개를 했던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방송하면 그런 반응이 있을까 의문이에요. 코너를 준비하면서부터 처음엔 꼭 이 노래를 틀어야겠다고 생각했었죠.

박: 전략적으로 성공한 셈이군요.

하: 아무래도 방송 시간대가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이니, 사람들이 많이 듣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노래를 소개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결국 성공했죠. 이



노래의 충격에 대해 자신도 있었고,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인터뷰를 하는 내내, 그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외국인이라는 말이 나오고서야 그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점을 상기할 수 있었고, 동시에 그가 한국사람 보다 더 한국사람 같다는 느낌도 받았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전쟁을 딛고 빠르게 성장한 한국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일본과 가까이 있지만 결핵만큼은 여전히 큰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는 결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결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다.

박: 혹시 결핵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하: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밴드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난 후 그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결핵에 걸려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밴드를 못하게 되었는데, 결핵하면 그때 일이 생각나네요.

그는 결핵이 옛날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질병이라고 했다. 옛날 뉴스에서나 보았던, '설마 지금도 있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질병이라고. 우리 국민들도 결핵은 사라진 질병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던 그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말했다.

하: 일본에도 대한결핵협회처럼 JATA가 있네요? 홈페이지를 보니 '결핵이 과거의 병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라고 광고하고 있군요. 하루에 66명이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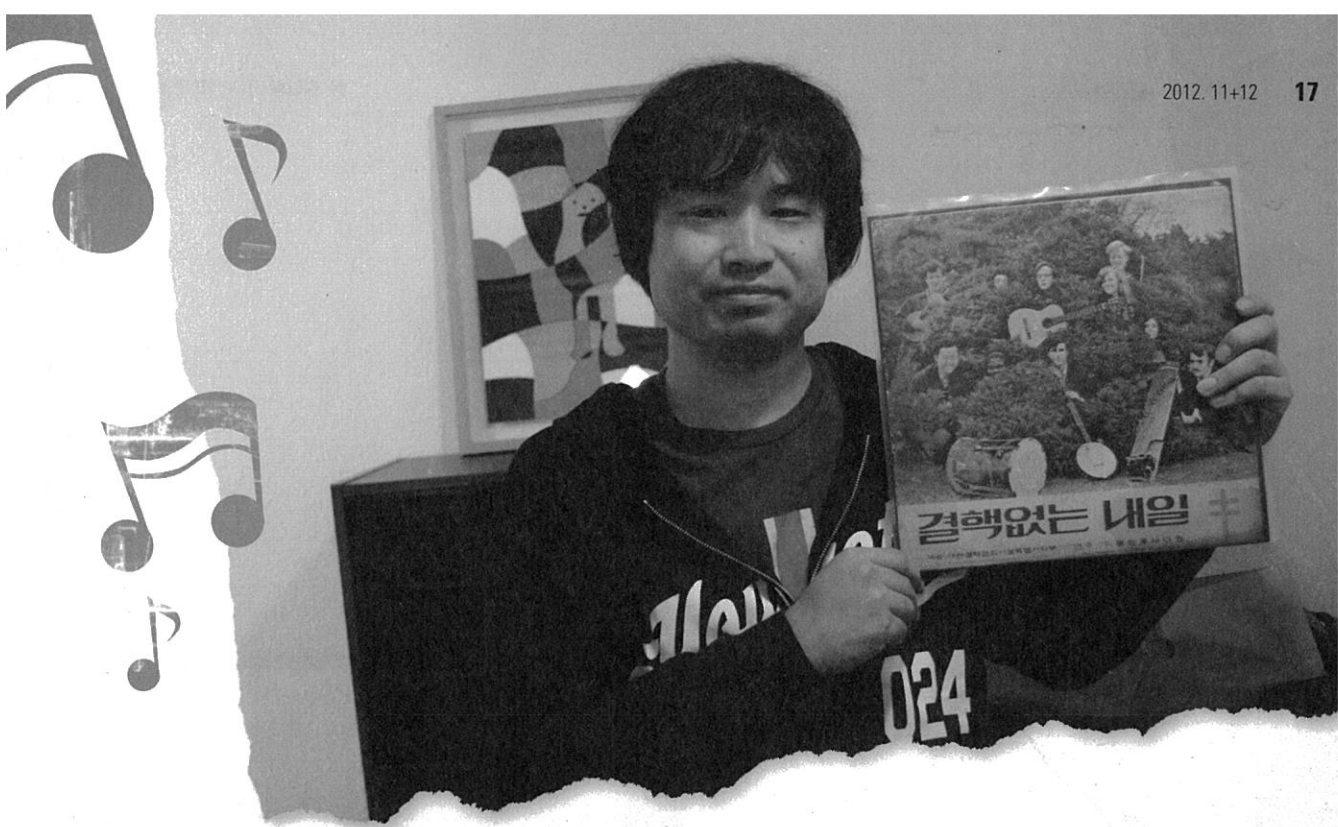
음악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다. 그것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감정적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행동의 변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1969년 당시의 젊은이들은 아마도 그러한 음악의 힘에 기대어 '결핵 없는 내일'이라는 노래를 만들지 않았을까?

박: 하세가와 씨는 결핵퇴치에 대한 관심으로 노래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 '결핵 없는 내일'을 편곡해서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노래에 관심 있는 뮤지션들이 각각 편곡해서 음반을 만들어보는 거죠. 판매금은 대한결핵협회에 후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뜻 깊지 않을까요?

박: 노래를 만든다면, 어떤 장르로 만드실 생각인가요?





하: 저에게 있어서 결핵과 음악을 연결시켜주는 매개가 아무래도 이 음반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밴드를 바탕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고 싶군요.

박: 결핵퇴치송의 가사를 만들어본다는 느낌으로, 결핵퇴치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해주신다면?

하: 결핵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핵을 과거의 질병으로 바라보죠. 하지만, 그들이 결핵에 걸리게 된다면 그 순간, 과거로 돌아가는 셈이에요. 반대로,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어서 완치해서 건강해질 앞날만을 바라보죠. 바로 그들의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중간지점인 현재에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결핵퇴치를 위한 방법들을 모색한다면 정말 결핵 없는 내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를 알고, 건강한 내일을 향해!’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뻐다. 결핵을 통해 음악을 만난다는 기회가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다. 1969년의 음반에 담긴 결핵퇴치의 소망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결핵관리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현재의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노래했던 ‘결핵 없는 내일’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 ‘결핵 없는 내일’을 외친다면 어떨까?*